

월간 실적보고

2017.06

Summary of 2017 Jun

1. 해외여행상품 (패키지+티켓+단품) 33.7% 성장

- 해외 총 송객인원과 단품 (입장권, Pass 등)을 합산한 수치

2. 해외 총 송객인원 (패키지+티켓) 24.7% YoY 증가

- 패키지 20.2% / 티켓 29.9% YOY 증가
(11.3만명 / 10.5만명)

3. 일본 101% 유럽 53% 동남아 48% 미주 25% 남태평양 7% (YoY)

- 일본 성장률 매달 증가 (4월 10% → 5월 38% → 6월 101%)
- 유럽 7개월 평균 YoY 56.4% 성장

6월 Review : 해외여행상품 (패키지+티켓+단품) 성장률 33.7%

해외 총 송객인원 (패키지+티켓) 성장 24.7%, 송객인원 21.7만명. 16년 12월 부터 매월 20만명 이상 송출 패키지 인원 성장률 20.2%, 11.3만명. 전년 6월 성장률 기고 (YoY 20%) 에도 불구하고 높은 성장. 티켓 인원 성장률 29.9%, 10.5만명. 14년 8월 이후 지금까지 매월 두 자릿수 성장률 지속

6월 실적

(단위 : 명, %)

	패키지	티켓	총 송객인원
2017	112,704	104,594	217,298
2016	93,783	80,505	174,288
YOY	20.2%	29.9%	24.7%

패키지 YoY : 4월 3.5% → 5월 7.6% → 6월 20.2%

티켓 YoY : 4월 44.4% → 5월 39.8% → 6월 29.9%

총송객 YoY : 4월 18.9% → 5월 20.9% → 6월 24.7%

지역별 성장 (YoY)

일본 101.2% 유럽 52.7% 동남아 47.5% 미주 25.4% 남태평양 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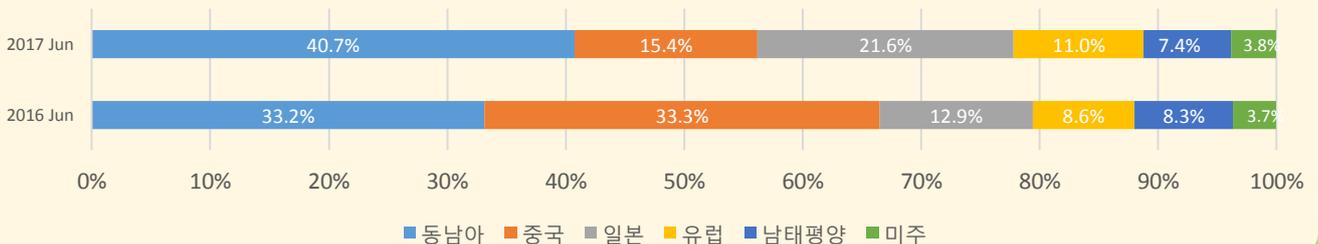
일본 +101.2%, 동남아 +47.5%, 일본 2년 만에 세 자릿수 YoY 성장률 보이며 급성장. 동남아 5개월 평균 47% YoY 성장하며 근거지 지역 중 가장 안정적 성장. 특히, 6월 ASP YoY 상승률 가장 높은 지역 2곳이 일본과 동남아. 한중관계 경색으로 인한 지속되는 중국의 부진을 일본과 동남아가 상쇄.

유럽 +52.7%, 7개월 평균 YoY 56.4% 성장. 장거리 지역 중 가장 높은 성장성 여전히 유지.

미주 +25.4%, 남태평양 +6.8%, 비수기에도 유럽 독주가 아닌 장거리 전체적으로 꾸준한 성장 지속.

중국 -44.4%, 5월 대비 역성장폭 감소 (YoY: 5월 -61% → 6월 -44%)하며 소폭의 개선. 7월초 열리는 G20 기간 중 한중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 한중 관계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며 이후 중국 실적 개선 기대.

인원 비중



예약률 증감 (PKG)

(단위 : 명, %)

	17년 7월	17년 8월	17년 9월
증감률	11.8%	16.1%	11.1%

* 2017.06.30 기준 국내 포함 모객 현황

3분기도 2분기와 마찬가지로 일본, 유럽이 성장 주도. 중국 제외한 전 지역 고른 성장. 5월 필리핀 계엄령 여파가 7월 예약률에 제한적으로 영향을 주었으나, 8월부터 다시 좋은 성장성 보임. 초중고등 학교 여름 방학이 7월 마지막 주로 예정되어 전년보다 조금 늦어지며 8월로 모객 집중 예상. 3Q16의 역기저 효과 불구, **3Q17 전체적으로 두 자릿수 성장률.**